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193-235
<https://doi.org/10.29212/mh.2018..107.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박민수*

1. 머리말
2. 만주의 증원 침공 배경
3. 對 중국 전략의 수립과 실천
4. 만주의 군사적 성과와 한계
5. 맺음말

1. 머리말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전쟁이란 직접 경험하기에는 비참한 일이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예찬하였다. 이때 전쟁사라는 분야는 ‘왜 전쟁을 하는가?’라는 근원적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본고는 入關 이전 만주¹⁾가 중원의 明을 상대로 펼친 여러 전투의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여, 그들이 왜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에 나서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쟁들을 수행하였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소위 ‘入關’은 順治 원년(1644) 攝政王 도르곤(Dorgon, 多爾袞)²⁾이 이끈 淸軍이 만리장성의 관문 중 하나인 山海關을 통과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³⁾ 하지만 산해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만주는 이미 홍타이지(Hong Taiji, 皇太極)⁴⁾ 집권 시기(1627-1643)에 수차례 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중국을 침공하였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만주의 군사적 업적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입관 이전 홍타이지 시기의 중원 공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전문적인 연구는 드문 편이다.⁵⁾ 그나마 피정복자이면서 인구

- 1) ‘만주’라는 용어는 원래 민족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지역의 이름으로 더 익숙하다. 만주를 지명으로 사용한 것은 18세기 말 일본과 유럽에서부터였고, 특히 20세기 초 일본의 대륙 침략과 ‘만주국’ 수립 이후 현재까지도 만주는 중국의 동북 지역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만주족이 만주 지역 출신이어서 만주족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본고는 ‘만주족’이라는 용어 대신 ‘만주’를 사용하려 하는데, 근대적 개념인 ‘민족’을 떠올리는 혼란을 피하고 그들이 자칭한 이름인 ‘만주(manju)’를 만주어 그대로 불러주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2) 본고에 등장하는 만주어 고유명사인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은 만주어 원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주어 고유 명사가 처음 나올 때 괄호 안에 만주어의 로마자 전사 및 한자를 함께 적고, 이후에는 만주어의 한글 표기만을 사용한다. 만주어는 필렌도르프 표기방식에 따라 로마자로 옮긴 것이다. 다만 사료에 한자로만 전사되어 있고 만주어 원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한자 전사로만 나타내기로 한다.
- 3) 袁良義, 「淸兵入關의 歷史功績 - 爲紀念淸兵入關350周年而作」, 『史學集刊』, 1994-4, p.22.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고자 다시 인용하는 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식으로 약칭한다.
- 4) 홍타이지는 한문으로 皇太極으로 표기되어 종종 그가 皇太子였던 것으로 오인되었다. 그러나 홍타이지라는 이름은 몽골인 사이에서 흔한 이름으로 ‘홀륭한 아들’이란 뜻이다. 홍타이지는 그의 姓인 아이신 기오로(Aisin Gioro, 愛新覺羅)를 제외한 이름일 뿐이고 결코 그의 공식적인 호칭은 아니었다.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396-397.

대다수를 차지한 한족의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정복자인 만주의 입장과 고민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⁶⁾

이에 따라 만주의 중국 정복과 군사 활동에 관해 적지 않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만주가 줄곧 중국 정복을 자신의 대업으로 생각했다거나, 그들이 중원에 통일 왕조를 세우려는 청사진을 일찍부터 마련해 왔다는 식으로 그들의 의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⁷⁾ 당시 명과의 대결 구도가 만주 정권에게 정당성 확보와 세력 확장의 원동력으로 활용된 측면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것이 명을 완전히 정복하고 대체하기 위한 군사행동으로 발전하였는지는 별도의 고증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만주의 군사적 성공을 설명하는 것과 원래 그들의 의도와 그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규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공의 결과로만 여겨졌던 만주의 군사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관 전 홍타이지 시기 만주 내부의 상황과 이후 後金-清 조정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결 과정, 그리고 명·청 교체라는 시대적 추이를 큰 시야에 놓고 연속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타

-
- 5) 李鴻彬, 『滿族崛起與清帝國建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王思治·李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清檔案與歷史研究: 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8.
- 6) 關文發, 「試論我國古代的民族關係和清兵入關戰爭的性質 - 兼評“統一戰爭”說」, 『武漢大學學報』, 1986-1; 李凱燦, 「多爾袞與清初民族關係」, 『河南師範大學學報』, 2003-5; 李光壽, 「多爾袞入關始末」,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5, 1954; 李鴻彬, 「多爾袞與山海關大戰 - 兼論清初社會矛盾的變化」, 中國人民大學清史研究所編, 『清史研究集』 第五輯,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6; 吳燁南, 「山海關土紳與山海關之變 - 一組甲申山海關之變新史料的發現及意義」, 『燕山大學學報』, 2001-1; 王思治·呂元驄, 「甲申之變與清軍入關」, 『清史研究』, 1994-2; 馮年臻, 「清入關時期的民族政策及其局限性」, 『社會科學戰線』, 2002-3.
- 7) 劉承軍, 「清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 - 以清太祖、太宗正統觀為中心的考察」, 『商丘師範學院學報』, 2012-11;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 - “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戰爭理念”的碰撞和衝突」, 『清史研究』, 2011-4.

이지 시기 만주의 군사 활동과 특히 중원 공략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정복자로서 만주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위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주에게 중원 공략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들의 對 중국 전략과 군사 활동은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계획되고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난 만주의 고민과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입관을 전후로 한 만주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입관 후 淸의 중국 정복과 통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는 만주가 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고 어떠한 계기로 중원을 침공하기 시작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만주 내부의 역사적 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의 양상을 크게 天聰 연간(1627-1636)과 崇德 연간(1636-1643)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제3장에서는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가 對 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된 만주 대신들과 한인들이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천총 연간에 시도된 중원 침공의 사례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중원 공략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만주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실제 전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으로써 만주가 시도한 중원 공략의 특징을 도출해 볼 것이다.

이상의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개 부락에서 출발한 만주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중원의 승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만주의 눈부신 군사적 성공과 향후 본격적인 중국 정복에 나서게 된 원동력을 규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홍타이지 시기 만주의 내부 상황과 군사 활동에 주목한 본고의 분석을 통해, 중국 최후의 왕조로 부상한 淸의 성공 요인을 규명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만주의 중원 침공 배경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는 부락을 통합하고 天命 원년(1616)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國)⁸⁾, 즉 후금을 건국하였다.⁹⁾ “영명한 지도자”라는 뜻의 경기연 한(genggiyen han)을 칭한 누르하치는 자신의 연호이기도 한 천명사상을 빌어 자신이 요동 지역을 정복한 것은 하늘의 뜻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 또한, 누르하치는 12세기 중원 진출에 성공한 여진 金の 역사를 거울삼아 후금의 영토 확장으로 다가올 중원 왕조와의 대결을 기약하였다.¹¹⁾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도 이러한 전략을 계승하여 『金史』를 만주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遼史』와 『元史』 또한 만주어 및 몽골어로 번역하게 하였다.¹²⁾ 홍타이지는 遼-金-元과 중원 왕조 宋의 역사적 대결 구도를 차용하여 명과의 라이벌 관계를 설명하고, 만주 정권의 합법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홍타이지는 자신이 중원의 천자가 되는 것이 만주의 기원 혹은 정체성과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¹³⁾ 이처럼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의식적으로

8)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원래 공식적인 국호였던 ‘아이신 구룬’이라는 만주어 명칭 대신, 독자에게 익숙한 ‘후금’이라는 한자식 국호를 쓰기로 한다.

9) 누르하치의 등장과 초기 부락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의 자세한 설명을 참조.

10)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pp.39-41.

11)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二), 天命 7년 4월 17일, p.1127.

12) Mark C. Elliott, 2005, pp.31-32. 엘리엇은 이 번역 프로젝트가 만주 자신의 역사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만주’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이 말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지는 여전히 다양한 추측과 설명이 존재한다. 천총 9년(1635) 홍타이지가 만주를 민족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도, 만주는 자신의 집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통용되었다. 본고에서는 따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근거를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자신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만주의 제국 건설을 이전 요-금-원이 보여준 성공의 역사와 연결시킴으로써 정당화하려 하였다.¹⁴⁾

그러나 역사상 요와 금은 중국의 일부만을 정복하는 데에 그쳤고, 누르하치 또한 이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정복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저하기도 하였다. 천총 원년(1627) 4월 8일¹⁵⁾ 홍타이지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天命 7년(1622)에 廣寧을 얻은 후, 모든 왕과 대신들이 곧바로 산해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자, 아버지 한(han, 汗)이 이르시기를, “예전 大遼, 大金, 大元이 각자의 땅에 살지 않고 漢人의 內地로 들어가 거주하여 사는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모두 한인이 되어 버렸다. 산해관으로 나아가 사느니, 우리의 요동 땅에서 사는 편이 낫다.”고 하셨다.¹⁶⁾

위 기록을 통해 당시 만주가 가지고 있었던 중원 진출에 대한 신중함, 혹은 경계심을 엿볼 수 있다. 누르하치뿐만 아니라 홍타이지 자신도 상황에 따라 만주를 금과 동일시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는 천총 5년(1631) 8월 13일 大陵河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명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만주는 이전의 금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전하였다.

그 후 북경에 우리의 군대가 갔을 때 계속 화의하자고 문서를 보냈지만, 명의 황제와 대신들은 계속 옛날 송 황제의 사례를 들면서 나에게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大明의 황제는 송 황제의 혈통이 아니다. 나 또한 이전 금 황제의 혈통이

용어로서 ‘만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한다. 姚大力·孫靜, 『“滿洲”如何演變爲民族』, 『社會科學』, 2006-7;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7 등의 설명을 참조.

14) Mark C. Elliott, 2005, pp.60-63.

15) 본고의 날짜 표기는 後金 및 淸의 연호와 음력 날짜를 사용한다.

16) 『舊滿洲檔』(六), 天聰 원년 4월 8일, pp.2605-2606. 이하 『舊滿洲檔』과 『滿文老檔』의 번역문은 譯註本의 일본어 번역을 따르지 않고 만주어 원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새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아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時와 人心이 모두 다른 것이다. 대국에 어찌 현명한 자가 없는가. 때와 사람을 살펴 돌이켜 생각하지 않는구나.¹⁷⁾

여기서 홍타이지가 금과 만주를 구별하는 논리는 화의를 거부하는 명을 비난하고 설득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가 중국을 대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대내적으로 부락을 통합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금은 만주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선례이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하고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금이 중원의 송을 공격하여 남쪽으로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끝내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¹⁸⁾

홍타이지가 직면한 현실 또한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홍타이지 시기 후금은 이전 누르하치 시기와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¹⁹⁾ 홍타이지가 즉위한 해에 마침 대기근이 발생하였는데, 천총 원년(1627) 6월 23일 후금의 열악한 식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糧食 1金斗가 銀 8량에 달했다. 백성들이 人肉도 먹었다. 이때 나라에 銀은 풍부했지만 교역할 바가 없어서 은값은 싸고 물건값은 비쌌다. 駿馬 한 마리가 은 300량, 좋은 소 한 마리가 100량, 비단 한 필이 150량, 면포 한 필이 9량에 달했다. 도적이 일어나 말과 소를 훔치고 사람을 죽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²⁰⁾

당시 만주 사회는 수렵·목축·채집 경제로부터 농업 경제로 이행해 가는 ‘半農半牧’의 과도기적 발전 단계에 있었다.²¹⁾ 후금은 명, 조선과

17)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61) (5), pp.544-545.

18)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河內良弘 譯註·編著, 京都: 松香堂書店, 2010), 崇德 3년 7월 丁卯(6), p.417.

19) 劉小萌, 2007, p.312.

20)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9) (4), 天聰 원년 6월 23일, pp.87-88.

의 변경 무역으로 상당량의 은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잦은 무력 충돌로 교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은은 풍부하지만 식량과 같은 실물은 부족한 의존적인 경제 구조하에서 기근이 발생했을 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²²⁾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가 내세운 기본적인 방침은 약탈전을 통한 물자와 식량의 획득이었다.²³⁾ 비록 출정의 비용은 병사 스스로가 부담해야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이상의 전리품을 분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정은 그들에게 부를 얻는 수단이기도 하였다.²⁴⁾ 즉 전쟁 준비와 참여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고 국가는 전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²⁵⁾ 한인 농경 사회에 대한 침공은 북방 민족으로서 재화 획득을 위한 가장 일반적이면서 중요한 수단이었고,²⁶⁾ 만주 또한 반농반목의 경제적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경사회 중국에 대한 약탈과 정복에 나서게 되었다.

천총 3년(1629) 10월 2일 홍타이지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제1차 중원 침공에 나섰다.²⁷⁾ 이때 처음으로 중원 공략이 시도된 이유는 앞서

21) 임계순,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서울: 신서원, 2000, p.43.
 22)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 만주의 취약한 경제 구조와 식량 부족 상황은 谷井陽子, 「八旗制度再考(二) -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2006의 설명이 자세하다.
 23)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p.518; 谷井陽子, 2006, p.47.
 24) 李民賓, 『紫巖集』(韓國文集叢刊 82,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1992) 卷6, 「建州聞見錄」, pp.5b-6a.
 25) 蘇燦永, 「入關前 淸朝의 經濟的 狀況 -崇德 年間的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4, 2010, pp.184-185.
 26) 金浩東, 「古代 遊牧國家의 構造」, 서울大學校東洋史研究室 편, 『講座 中國史 2』,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262-263.
 27) 『淸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癸丑(2). 이하 實錄의 날짜 표기는 원래의 간지와 더불어 괄호 안에 음력 날짜를 함께 적어 시간의 선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고질적인 식량난 때문이었다. 특히 천총 3년(1629) 關外에는 큰 가뭄이 들어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였고, 귀부해 온 漠南 몽골 諸部도 먹을 식량이 없어 ‘人相食’할 정도였다.²⁸⁾ 홍타이지는 심각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중원 침공이라는 모험을 결행한 것이다.

홍타이지는 아민(Amin, 阿敏)으로 하여금 瀋陽을 지키게 하고, 지르갈랑(Jirgalang, 濟爾哈朗)은 錦州와 寧遠 인근을 공격하게 하여 명의 薊遼督師 袁崇煥의 시선을 遼西 지역에 묶어놓은 다음, 자신은 직접 주력군과 몽골의 각 部에서 징발한 군사를 이끌고 西進하여 내몽골 초원 방면으로 만리장성을 넘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쳤다. 홍타이지는 원승환이 굳게 지키고 있던 영원성과 산해관을 피해 永平 방면의 龍井關과 遵化 방면의 大安口, 喜峰口를 통해 직접 명의 수도 北京으로 향하는 길을 택했다.²⁹⁾ 산해관에서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遼西回廊 방어에 집중하고 있던 명군은 그만 허를 찔리고 말았고, 10월 27일 홍타이지는 처음으로 장성을 넘어 준화 인근의 洪山口에 진입하였다.³⁰⁾

영원성을 방어하던 원승환은 홍타이지의 중원 기습 소식을 접하고 병력을 끌어모아 북경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다. 원승환은 산해관에 도착한 직후 參將 趙率教에게 준화를 구원하도록 명했다. 11월 3일 홍타이지는 준화 공격에 나섰고 山海總兵 王元雅가 이끄는 명군이 힘껏 저항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으며, 준화를 향해 달려오던 趙率教 또한 중간에 북명을 만나 전사하였다.³¹⁾ 중원의 성 가운데 최초로 함락된 준화에서는 대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북경의 명 조정은 경악하였다. 이어 良鄉縣, 固安縣, 香河縣이 함락되었고 順義, 灤州, 遷安

28) 『明清史料』 甲編, 第八本, 「兵部行督師袁崇煥題稿」(崇禎 2년 3월 2일), pp.707a-b.

29) 『清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乙亥(24).

30) 『清太宗實錄』 卷5, 天聰 3년 10월 戊寅(27).

31) 『滿文老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下冊, 天聰 3년 11월 3일, p.946.

등의 州縣은 저항 없이 곧바로 투항하였다.

한편 병력을 이끌고 밤낮으로 달려온 원숭환은 11월 17일 북경 廣渠門 앞에 도달하였고, 20일에 후금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십여 차례의 사투 끝에 홍타이지는 결국 뒤로 물러났다.³²⁾ 비록 원숭환의 재빠른 대응으로 홍타이지는 성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북경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였다. 더구나 명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자신의 숙적이었던 원숭환을 反間計로 제거하는 뜻밖의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명 조정은 후금군이 산해관을 피해 華北으로 우회하여 북경으로 접근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서희망을 지키던 원숭환이 홍타이지와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그를 처형해 버린 것이다.³³⁾



<그림 1> 천총 3년(1629) 제1차 중원 침공의 진행

후금군은 이듬해 2월까지 4개월여 동안 북경 인근 지역을 휩쓸면서

32) 閻崇年, 「論明代保衛北京的民族英雄袁崇煥」, 『北京史論文集』 第1輯, 北京: 北京史研究會, 1980, pp.130-132.

33) 李鴻彬, 2003, pp.137-138.

많은 인구와 물자를 전리품으로 끌어모았다. 마침내 천총 4년(1630) 3월 홍타이지는 심양으로 귀환하였고, 대신 심양을 지키던 아민과 쇼토(Šoto, 碩託)를 불러들여 永平, 遵化, 灤州, 遷安 등 4개 성을 지키게 하였다.³⁴⁾ 그러나 곧 명의 총병 祖大壽가 반격하여 난주를 수복하였다. 이때 軍中의 대신들은 나머지 3개 성을 굳게 지키며 성안의 백성을 보호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민은 이를 듣지 않고 천안과 영평에서 대대적인 도살을 자행하였다. 아민은 학살 이후에 전리품을 챙겨 성을 버렸고 명군은 곧바로 황폐해진 성을 수복하면서, 만주의 제1차 중원 침공은 비로소 일단락되었다.³⁵⁾

하지만 이번 제1차 중원 침공은 만주의 숙적이었던 원숭환을 제거하고 새로운 루트를 통한 기습 작전이 명의 북경에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김으로써, 이후 명을 상대로 한 전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최초의 중원 침공이자 북경 쇄도였던 이번 전투를 통해 홍타이지는 명 공략에 한층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원숭환이 반간계로 제거된 후 兵部尙書에 오른 孫承宗은 후금군이 점령했던 영평, 준화, 난주, 천안을 수복하고, 군대를 다시 산해관 외곽으로 집중시켜 大陵河城을 수축하는 등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요서 지역에 새로운 방위 태세가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홍타이지는 천총 5년(1631) 8월 2일 몽골 버일러들이 이끄는 부대를 출격시키고, 버일러 더걸러이(Degelei, 德格類), 요토(Yoto, 岳托), 아지거(Ajige, 阿濟格)에게 2만의 군대를 이끌고 금주와 대릉하 사이에 주둔하게 하였다.³⁶⁾ 홍타이지는 8월 5일 밤에 군대를 이끌고 출발하였고 계획대로 6일 두 부대가 대릉하에 집결하였다.³⁷⁾ 이때 조대수가 지키고 있는 대

34) 『滿文老檔』 下冊, pp.1006-1009.

35)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165.

36) 『清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癸卯(2).

37) 『清太宗實錄』 卷9, 天聰 5년 8월 丙午(5).

릉하성의 군사가 1만 4천 정도에 불과하다는 첩보를 접한 홍타이지는 곧바로 그날 밤 대릉하성을 포위하였다.³⁸⁾

홍타이지는 천총 원년(1627)에 실패로 끝난 영원·금주 전투를 교훈 삼아 성벽을 향해 돌격하는 전통적인 공격법을 자제하고, 대릉하성에서 금주로 이어지는 길에 군사를 배치하여 지원군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성을 고립시킨 상태로 장기전을 펼쳐 고사시키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조대수는 소규모 국지전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인근 송산성과 금주성에서도 몇 차례 지원군을 보냈지만 이 또한 모두 격퇴당하였다. 이후 9월 27일 산해관 방면에서 출동한 지원군마저 크게 패하자,³⁹⁾ 식량 고갈로 끝내 버티지 못한 조대수는 천총 5년(1631) 10월 28일 스스로 성문을 열고 투항하였다.⁴⁰⁾

3. 對 中國 전략의 수립과 실천

제1차 중원 침공에 이어 대릉하성까지 손에 얻은 홍타이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총 7년(1633) 6월 18일 명, 조선, 차하르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해야 할지 만주의 최고위 대신들인 버일러와 구사어전(gūsa-i ejen, 固山額眞)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밝히게 하였다. 실록에는 이날 ‘대토론’에 참석한 버일러 9명과 구사어전 7명, 총 16명의 의견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⁴¹⁾

38) 『清太宗實錄』卷9, 天聰 5년 8월 丁未(6).

39) 『清太宗實錄』卷9, 天聰 5년 9월 戊戌(27).

40) 『清太宗實錄』卷10, 天聰 5년 10월 戊辰(28). 그러나 이번 대릉하성 전투는 만주와 몽골 장병들의 수확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약했다고 한다. 谷井陽子, 2015, p.223.

41) 이하 본문에서 소개하는 만주 대신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清太宗實錄』卷14, 天聰 7년 6월 戊寅(18)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명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신이 신속한 침입과 효율적인 약탈을 통해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대업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때 산해관 공략 여부를 두고 대신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갈렸는데, ㉠ 산해관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 산해관을 언젠가는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해 遼西 지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또한, 북경을 공략하는 방법에서도 ㉢ 북경을 즉각 공격하여 약탈을 극대화하자는 단기전 주장과 ㉣ 북경을 포위하고 인근 도시를 점령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장기전 주장이 서로 맞섰다.

<표 1> 천총 7년(1633) 6월 만주 대신 '대토론'의 의견 정리

산해관 \ 북경	㉢ 북경 즉각 공격, 단기전, 약탈과 분배 강조	㉣ 북경 포위 압박, 장기전, 전략 거점 마련	계
㉠ 산해관 공략 반대, 내몽골 초원 점유 침투	버일러 아지거	吏部 버일러 도르곤	11
	버일러 도도	버일러 호오거	
	구사어전 여천		
	구사어전 피양구	구사어전 양구리	
	구사어전 일턴	工部 버일러 아바타이	
	兵部 버일러 요토		
구사어전 각두리			
㉡ 산해관 공략 기약, 遼西 지역 확보 필요	구사어전 령거리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	4
		禮部 버일러 사할리안	
		구사어전 호쇼투	
계	8	7	

※ 버일러 두두: 차하르 우선 공략 주장

우선 <표 1>에서 위·아래로 구분되는 ㉠와 ㉡ 산해관 공략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산해관 공략을 반대하고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으로 침투해야 한다는 ㉠ 의견(11명)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사의

사기를 올리고 전쟁 자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많은 전리품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 전략은 차하르가 근접해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몽골 초원을 통해 명의 경계를 비교적 쉽게 드나들 수 있고, 명이 모든 장성 지역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산해관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더욱이 이 시기 명군은 중원에서 발생한 流賊의 토벌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화북으로 우회하는 만주의 침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화북 지역에 일단 진입하기만 하면 만주의 장군과 병사들은 수월하게 약탈을 행할 수 있었다.⁴²⁾

구체적으로 버일러 도도(Dodo, 多鐸)는 “우리 병사는 전쟁에 겁을 내지 않지만, 각자의 욕망을 채우게 해주면 죽더라도 거리낌 없이 달려 드는 데 반해,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싸울 뜻을 금세 접어버립니다. 만약 산해관 외곽의 성만 공격하는 데 그친다면 마치 엮어놓은 그릇 속에다 목표물을 놓아두고 활을 쏘아 맞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산해관 밖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북경이나 通州의 성을 공격하는 것과 비록 이름은 같지 않지만, 거기에 드는 노고는 마찬가지로입니다.”라고 하여, 기왕 공격에 나섰다면 즉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북경이나 통주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만주가 명과의 전쟁을 그들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여겼음을 잘 보여준다.

도도의 형인 버일러 아지거도 명을 치고자 할 때 성을 차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버일러, 장수, 사졸에게 명하여 백성의 재물과 식량을 충분히 약탈하여 전리품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사어전 양구리(Yangguri, 楊古利)도 마찬가지로 명 원정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은 병사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약탈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산

42) 谷井陽子, 2015, pp.223-229.

해관 바깥의 영원이나 금주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명의 내지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고, 일단 중원에 자리를 잡게 되면 조선이나 차하르는 저절로 복속해 올 것이라고 장담하였다.⁴³⁾

이들이 화북 방면으로 우회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전리품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산해관 공략 자체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의 장자인 버일러 호오거(Hooge, 豪格)는 만주의 공성 전략을 명군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산해관 외곽의 영원과 금주는 공격해도 이득이 없고, 더욱이 예전부터 공격에 실패했는데 이를 계속 고집하면 병사들이 어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구사어전 일던(Ilden, 伊爾登)도 산해관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북으로 우회하여 들어가 성을 취할 만하면 취하고, 취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백성을 죽이고 집을 불태워 약탈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든 산해관을 공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영원과 금주 등 요서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④' 의견(4명)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들 또한 중원에 침입하여 북경 인근의 인구와 물자를 약탈하는 전리품의 확보와 분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산해관을 뚫어내기 위한 포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북경을 포위하여 지원군을 차단하고 인근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결국 산해관을 안팎으로 협공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이 경우 명에 대한 침공 전략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禮部 버일러 사할리얀(Sahaliyan, 薩哈廉)은 명 공략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우선 명의 내지를 습격하여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한 다음, 一片石으로 들어가 산해관을 공략하여 영원과 금주의 방어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사어전 령거리(Lenggeri, 楞額禮)도 우선은 명의 내지로 깊숙이 파고들어 북경 주변

43) 양구리의 상주는 만주어 원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2003), 天聰 7년 6월 27일, pp.93-94.

을 마음껏 짓밟고 약탈하되, 그 다음에는 군대를 정비하여 다시 산해관으로 들어가서 험한 요새에 기대어 그간 쌓아 놓은 식량으로 나중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⁴⁴⁾ 이러한 의견들은 당장 명의 내지에 침투하여 약탈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획득한 전리품은 결국 산해관을 견제하고 공략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해관을 공략해 내는 것이 명과의 대결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더 나아가 구사어전 호쇼투(Hošotu, 和碩圖)는 산해관 주변의 城堡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명과 접경하는 성들을 거점으로 하여 개간과 경작에 힘쓴 뒤에 비로소 명의 변경으로 들어가 식량을 취하고 말과 병사를 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병력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산해관 以東과 금주 以西로 진출하여 명의 경작과 방어 체계를 교란하고, 나머지 반은 중원으로 진입하여 약탈을 행하자는 刑部 버일러 지르갈랑의 내외 협공 전략도 결국 산해관의 존재가 만주에게 중원 공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 의견들은 물론 신속하게 명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 의견과 다르지 않지만, 막상 전쟁을 시작한 후에는 상황에 대한 예측과 미래를 위한 대비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표 1>에서 좌·우로 구분되는 북경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와 ㉡' 두 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북경을 비롯한 인근 주현을 약탈한 뒤 치고 빠지는 단기적 전략을 주장하는 ㉡측(8명)의 가장 큰 이유는, 병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사기를 올리는 전리품의 획득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구사어전 여천(Yecen, 葉臣)의 주장에 따르면, 북경 주변의 풍부한 물자와 인구를 약탈하는 것이야말

44) 령거리의 상주도 內國史院檔에 만주어 원문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한문 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 7년 6월 27일, p.95.

로 명 원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당장 북경을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병사의 소득과 사기를 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군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차하르의 공격은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 북경을 구하러 사방에서 몰려드는 지원군을 어떻게 격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로써는 북경 주변을 오랜 시간 포위하는 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㉞ 측의 논자들은 구사어전 피양구(Fiyanggū, 篇古)처럼 그저 “수도에 가까운 城堡를 불태워 없애고 백성을 죽이고 실컷 약탈한다면, 일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호탕한 장담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㉟ 측(7명)은 북경의 완벽한 공략을 위해서는 인근의 여러 주변을 점령하여 거점으로 마련하거나, 나중의 공격을 위한 식량을 비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원에 침공한 이후 거점을 버리고 급하게 귀환하면 고생한 보람도 없고, 나중의 공격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훗날 홍타이지 死後 함께 攝政에 나서게 되는 도르곤(Dorgon, 多爾袞)과 지르갈랑, 그리고 도르곤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호오거 또한 북경의 신속한 공격을 강조하되, 근처에 通州와 같은 전략적인 거점을 마련하여 이후 계속되는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또한, 북경 사방의 도로를 끊고 식량을 자체조달하며 거점을 마련하여 굳게 지키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2~3년 안에는 기회를 보아 큰 공을 세울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경 포위 작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진지하게 북경 점령을 목표로 했다면, 중원 내의 거점

45) 통주는 大運河를 통해 1년에 약 400만 석의 漕糧을 운송하는 漕運船의 종착지로서, 북경에 공급하는 물자와 식량이 운집하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요충지였다. 명의 수도 북경과 대운하의 역할에 대해서는 曹永憲, 「北京 首都論과 大運河 -明朝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55, 2008, pp.127-139의 설명을 참조.

에서는 물론이고 심양 본진으로부터의 병력 교체와 물자의 보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최단거리의 관문인 산해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논의는 다시 ㉠와 ㉠' 산해관 공략 논쟁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산해관 공략과 북경 점령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던 셈이다. 몽골의 여러 부족이 아직 완전히 복속해 오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산해관을 피해 내몽골 초원을 경유하는 원정 경로는 만주에게 너무나 멀고 험난하였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군량과 마초는 전적으로 현지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명군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겨우 몇 개의 성을 점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현지 조달도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행군 거리를 최소화하고 차하르의 기습도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을 공략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영원과 금주에서 산해관을 동쪽에서 공격하는 동시에, 화북으로 우회하여 확보한 북경 부근의 거점으로부터 산해관을 서쪽에서 협공하지는 작전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만주에 투항한 명의 관원 및 서생들 또한 獨石口나 密雲 등 되도록 동쪽으로부터 만리장성을 깨고 들어가야 한다거나,⁴⁷⁾ 바다로부터 산해관을 공격하여 수륙 양면에서 협공하지는 등의 산해관 공략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⁴⁸⁾

그러나 홍타이지는 이러한 제안을 모두 안이한 생각이라며 질책하였다. 홍타이지는 천총 7년(1633) 10월 10일 한인 啓心郎과 生員들을 다음과 같이 추궁하였다.

46) 谷井陽子, 2015, pp.31-32.

47) 『天聰朝臣工奏議』, 「寧完我等謹陳兵機奏」(天聰 6년 4월 24일); 『天聰朝臣工奏議』, 「(張弘謨)請乘時進取奏」(天聰 6년).

48) 『天聰朝臣工奏議』, 「周一元直陳愚見奏」(天聰 7년 5월); 『天聰朝臣工奏議』, 「(寧完我)請急圖山海奏」; 『天聰朝臣工奏議』, 「(馬光遠)請水陸並進奏」.

한인 계심랑과 생원들 너희가 나에게 글을 올릴 때 즉시 바다를 건너 山東을 취하자거나, 굳게 지키고 있는 산해관을 공격하자고 상주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다른 사람의 고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바다를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고, 굳게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하면 병사가 상하지 않겠는가.⁴⁹⁾

즉, 산해관의 확보는 분명 만주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로써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 혹은 아직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16명의 만주 대신 가운데 조선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차하르를 먼저 정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두두(Dudu, 杜度)가 유일했다. 조선과는 이미 화의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할 필요가 없다거나, 만약 명을 얻게 되면 원하는 것들이 조선으로부터 저절로 이르게 되리라 전망하였다. 또한, 차하르는 가까이 접근하면 상대하되 멀리 도망쳐 버리면 형세를 관망하며 정벌을 미루어 두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대신 명에 대한 공격은 하루라도 늦추면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내란도 점차 진압되어 반격할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니 하루빨리 공격을 개시해야 하고, 명을 도모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멸하거나 훨씬 쉽게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실제로 이후 홍타이지는 천총 8년(1634)부터 송덕 3년(1638)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명을 공격하였다. 천총 3년(1629) 제1차 침공에 이어 천총 8년(1634)에 시도된 제2차 중원 침공은 앞서 살펴본 천총 7년(1633) 6월 만주 대신의 ‘대토론’ 이후 홍타이지가 처음으로 명 공략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멀리 내몽골 초원을 거쳐 宣府와 大同을 향해 나아가기로 하였는데, 이번 공격이 혼란에 빠져 있는 차하르의 버일러들과 官民을 적극적으로 귀순시킬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⁰⁾ 즉 명을 공략하는 동시에 차하르

49) 『內國史院檔: 天聰七年』, 天聰 7년 10월 10일, p.167.

까지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천총 8년(1634) 5월 22일 홍타이지는 대버일러 다이산(Daišan, 代善), 버일러 아바타이(Abatai, 阿巴泰), 더걸러이, 아지거, 도르곤, 도도, 요토, 사할리안, 호오거 등 거의 모든 만주 대신과 군대를 이끌고 盛京⁵¹⁾을 출발하였다.⁵²⁾ 서쪽으로 내몽골 초원 깊숙이 진군하여 7월 上方堡로 들어가 山西의 선부와 대동 지역을 약탈한 뒤, 후금군은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은 채 9월 성경으로 귀환하였다.⁵³⁾

그리고 제3차 중원 침공은 다음 해 천총 9년(1635) 5월부터 7월까지 차하르의 잔여 세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⁵⁴⁾ 도르곤, 요토, 사할리안, 호오거 등이 이끈 차하르 원정군은 명의 산서 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太原府의忻州, 定襄, 五臺 등의 주현을 포위하고 행군에 필요한 군량을 약탈하였다. 또한 대동 등지에서 구원하러 온 명군을 상대로 크게 승리하여 8만여 명에 가까운 포로를 획득하였다.⁵⁵⁾

한편 홍타이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효과적인 중원 공략을 위해 명에서 투항해 온 한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대릉하 전투 승리 이후 많은 수의 한인 서생과 관원이 투항해 오자, 홍타이지는

50) 『清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5월 丙申(11).

51) 홍타이지는 천총 8년(1634) 4월 1일에 國語, 즉 만주어 사용을 강조하는 諭旨를 내려 總兵, 副將, 參將 등의 한어 관직명을 모두 암반장긴(amban-i janggim, 昂邦章京), 머이런장긴(meiren-i janggim, 梅勒章京), 잘란장긴(jalan-i janggim, 甲剌章京) 등의 만주어 관직명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는 한편, 기존의 수도 심양도 만주어로 묵던(mukden), 한문으로는 盛京으로 부르게 하고, 이전 한어 이름인 심양을 계속 쓰는 경우 국법을 어긴 죄로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였다(『清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4월 辛酉). 즉 천총 8년 4월 이후 후금의 수도, 그리고 훗날 청의 수도를 칭할 때는 반드시 묵던이라는 만주어 혹은 盛京이라는 한자 표기를 사용해야 했다. 본고에서도 천총 8년(1634) 이후 이 도시를 언급할 때에는 심양 대신 성경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52) 『清太宗實錄』 卷18, 天聰 8년 5월 丁未(22).

53) 『清太宗實錄』 卷20, 天聰 8년 9월 壬申(19).

54) 『舊滿州檔: 天聰九年』(2), 天聰 9년 2월 26일, p.83.

55) 『舊滿州檔: 天聰九年』(2), 天聰 9년 8월 26일, pp.250-259.

명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인 문관의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렴하였다.⁵⁶⁾ 먼저 천총 8년(1634) 7월 25일 大同에서 투항해 온 監生 張文衡은 명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뒤 명의 공략 대책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우선 선부와 대동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인근의 주현을 포위해 나가면 총병관들이 머지않아 투항 권유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혹은 곧바로 북경으로 진격하여 동쪽으로는 식량의 운송로를 막고 서쪽으로는 석탄 및 연료의 운송을 차단하며 지원군을 대비한다면, 북경은 곧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겨우 두 세 곳의 작은 성만을 얻고 대군을 돌린다면, 명의 황제는 기회를 엿보며 훗날 준비를 단단히 할 것이니 그 이후로는 북경을 직접 공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계하였다.⁵⁷⁾ 사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사할리안이나 양구리 같은 만주 대신들이 건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하였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명의 변경 지역에서 투항해 온 일개 감생의 견문이 당시 만주 최고위에 있는 사령관들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략의 바탕이 되는 북경 주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⁵⁸⁾

천총 9년(1635) 2월 8일에는 儒學生員 沈佩瑞가 중원 공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건의를 올려 주목된다. 그는 북경 공략이 아닌 산해관 돌파와 영원·금주 공략이 명을 공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56) Frederic Wakeman Jr., 1985, pp.160-170.

57) 『清太宗實錄』 卷19, 天聰 8년 7월 己酉(25).

58) 감생 장문형은 다음 해 천총 9년(1635) 2월 3일에도 조속한 출병을 촉구하는 건의를 올렸다. 지금 명의 상황은 작년보다 더 악화되었으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 지금 산해관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번거로움이 늘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 만주가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인 성경 또한 오래 편안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놓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환을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다소 도발적인 표현으로 조속한 출병을 촉구하였다. 『舊滿州檔: 天聰九年』(1)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 pp.52-55; 『清太宗實錄』 권22, 天聰 9년 2월 甲申; 『明清史料』 丙編, 第一本, 「張文衡奏本」, p.32.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軍餉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屯田의 활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건의하였다. 廣寧 지역 闔陽驛 일대 황무지에 6만 馬兵에 속한 步兵 중에 농사에 익숙한 자를 선발하여 둔전에 종사하게 하고, 빈부에 따라 각각 소와 농기구를 갖추게 하며, 농사에 정통한 자를 파견하여 농사를 감독하게 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馬兵을 주둔시켜 경작지를 방어하게 하고 강물이 녹을 때 추수한 곡식을 운반하게 하면 된다는 운송 방안까지 세세하게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兵餉을 충분히 축적하고 나면 앞으로 산해관을 공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경을 직접 타격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구나 지금 농민군이 북경의 서쪽에서 난리를 일으키고 있고, 우리 병사들은 동쪽을 괴롭히고 있으니 명은 진퇴양난에 빠져 오히려 그들이 먼저 화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니, 둔전의 방책이야말로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⁹⁾ 이상의 건의는 요동과 북경의 상세한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방안이어서, 앞서 살펴본 어떠한 전략보다도 구체적이고 당시 만주의 내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를 받아들인 홍타이지 또한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천총 9년(1635) 2월 18일에는 귀순한 한인 생원 楊明顯, 楊譽顯, 楊生輝 등이 명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종합하여 보고하였다.⁶⁰⁾ 우선 ① “한꺼서 하루라도 빨리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북경을 공략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북경은 천하의 머리오, 천하는 곧

59) 『舊滿州檔: 天聰九年』(1), pp.64-67.

60) 楊明顯, 楊譽顯, 楊生輝는 성명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 형제지간이거나 사촌 간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자세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의 상주문은 만주어로 작성된 『舊滿洲檔』에는 물론이고, 한문본인 『清太宗實錄』과 『天聰朝臣工奏議』,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된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에 모두 실려 있는데, 각각의 문장과 세세한 표현이 서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당시의 어감을 살리기 위해 『舊滿洲檔』에 수록된 만주어본을 활용하였다. 『舊滿洲檔: 天聰九年』(1), 天聰 9년 2월 18일, pp.72-76.

북경의 팔다리이니, 머리를 제거해 버리면 팔다리는 자연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안과 밖에 돕는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북경이 함락되어 민심이 흩어졌을 때 한꺼서 군대를 내신다면 그야말로 돌로 계란을 치고 대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을 한번 써서 최대한 빨리 공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고, 이어 ② “한꺼서 느긋하게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북경에 가까운 府와 縣을 공격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부와 현은 북경의 날개요, 북경은 부와 현의 몸통이니, 날개를 제거해 버리면 몸통은 자연히 시들 것입니다. 게다가 북경 남쪽의 군대는 방어 준비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성도 견고하지 않으니, 한꺼서 훈련시킨 병사가 한번 출동하기만 하면 주머니 속의 물건을 취하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북경 인근의 성을 얻고 나서, 북경의 동쪽으로 식량 운송로를 끊고 서쪽으로 연료 운송로를 끊은 채 오래도록 포위하면 북경은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들이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③ “한꺼서 천천히 도모하고자 하신다면, 둔전을 개척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영원과 금주 근처에 주둔하고 둔전을 개척하면서 수시로 약탈에 나서 그들의 경작을 방해하면, 결국 명군은 영원과 금주를 버릴 것이고 산해관 또한 손쉽게 얻을 것입니다. 산해관이 우리 것이 되면 우리가 중원에 들어가고 나갈 때 험난함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수고가 없어질 것이니, 그들은 입술이 없어져 이빨이 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점차로 진입해 들어가는 방법이고 고생하지 않고 만금을 거두는 방법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분류한 다양한 전략을 단순히 上策, 中策, 下策의 구분이 아니라, 각자의 장점이 있고 모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명 공략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만주에게 중원 침공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이 뒷받침되었음을 반

증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북경의 전략적 중요성 및 북경 공략이 중대한 현실적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한인 감생과 생원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정작 최고 결정권자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인들의 도발적인 명 공략 건의에 대해서 홍타이지는 대부분 실망을 표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⁶¹⁾ 천총 9년(1635) 2월 7일 홍타이지는 한인들의 천편일률적인 상주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이들이 전쟁의 참혹함과 긴박함을 모르고 공을 세우기에 급급하여 탁상 공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차하르 몽골이 이제 막 귀부한 상태에서 대군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리인지 설명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속한 명 정벌과 군대 동원만 주장하는 이들을 꾸짖었다. 대신 홍타이지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홍타이지의 고민은 ① 명 황제에 대한 추격 여부와 북경 공략의 방침, ② 혹시 당장 있을 수도 있는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한 대응과 ③ 장차 북경 포위 후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한 대응, 그리고 향후 북경 점령 후 ④ 백성의 안정화 정책과 ⑤ 만주 귀족들의 통제 방침 등 다섯 가지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⁶²⁾

4일 후 2월 11일에 刑部承政 머이런장긴 高鴻中은 홍타이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였다. 우선 ① 명 황제가 남쪽으로 도망한다면 굳이 뒤쫓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설령 많은 황족을 사로잡는다 해도 명은 결국 남은 사람 중의 한 명을 황제로 추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결사 항전하며 南遷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성의 방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므로, 이때에는 북경을 고립시켜 변란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② 명의 화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

61) 谷井陽子, 2015, p.491.

62) 『舊滿州檔: 天聰九年』(1), 天聰 9년 2월 7일, pp.63-64.

진위 여하를 따져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허락하되, 그들이 여전히 명분을 중히 여긴다면 화의를 맺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차 ③ 포위된 명이 급히 화의를 청하며 黃河를 경계로 삼자고 하면 허락해 줄 수 있지만, 산해관을 경계로 하자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경 점령 후 백성의 안정화 방책에 대해서는 ④ 둔전을 실시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이 모두 생업에 안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하였으며, ⑤ 창고에 있는 錢糧을 조사하고 만주 귀족이 분수에 넘치게 재물을 빼돌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⁶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항한 한인 서생들이 명 조정에 대해 다분히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앞선 반면, 한인 고관으로서 고흥중은 자신의 답변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동시에 명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都察院 承政 張存仁도 우선 명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되, 앞으로의 중원 공격은 이전과 같은 잔혹한 도살과 약탈보다는 백성을 안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⁴⁾ 그의 주장은 한인 관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명분’의 중요성과 궤를 같이하는데, 중원과 중원의 백성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만주 대신들의 ‘대토론’에서는 이러한 중원 백성에 대한 고려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만주 대신들은 對 중국 전략을 논의할 때 만주 병사의 사기나 전리품의 분배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반면, 한인 관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명을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 즉 중국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63) 『明清史料』 丙編, 第一本, 「高鴻中奏本」(天聰 9년 2월 11일), p.45.

64) 『舊滿州檔: 天聰九年』(2)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5), 天聰 9년 12월 21일, pp.361-367.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천총 연간의 홍타이지에게는 당장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군대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물자와 인구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다. 이때 논의되고 시도되었던 명에 대한 침공도 장기적인 중국 정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만주의 對 중국 전략은 결국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새로운 변수를 기다리거나, 혹은 만주 내부에서 중국 정복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체화할 때에 비로소 수정될 수 있었다.

4. 만주의 군사적 성과와 한계

천총 10년(1636) 4월 다이칭 구룬(Daicing Gurun, 大清國)⁶⁵⁾의 황제로 즉위한 홍타이지는 마치 이를 과시하려는 듯 승덕 원년(1636)⁶⁶⁾ 5월 30일 아지거, 아바타이, 양구리 등으로 하여금 제4차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였다.⁶⁷⁾ ‘후금군’에서 ‘청군’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65) ‘다이칭’이라는 국호가 어디서 기원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예컨대 샤머니즘에서 숭상하는 글자 ‘靑’에서 따왔다는 설, ‘明’이 火德이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는 水德을 상징하는 ‘淸’을 채택했다는 설, ‘淸’과 ‘金’이 만주어로는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후에 그저 표기를 다르게 한 것뿐이라는 설 등이 있다. 그리고 몽골인이 흔히 사용하는 귀족의 호칭으로 ‘통솔자’ 혹은 ‘용감한 전사’를 의미하는 칭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 鄭天挺, 『淸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pp.72-73; Mark C. Elliott, 2001, pp.402-403의 설명을 참조. 본고에서는 ‘아이신 구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국호였던 ‘다이칭 구룬’이라는 만주어 명칭 대신 독자에게 익숙한 ‘청’이라는 한자식 국호를 쓰기로 한다.

66) 천총 10년(1636) 4월 11일 홍타이지가 황제에 올라 승덕으로 개원하면서, 4월 12일부터는 승덕 원년으로 불리게 된다.

67) 『淸太宗實錄』 卷29, 崇德 원년 5월 癸酉(30).

6월 27일 獨石口를 통해 장성을 넘은 뒤 延慶을 거쳐 居庸關으로 진입하여 順義, 昌平 등 북경 인근의 성을 공략하였다. 청군은 이때 10여 곳의 주현을 유린하고 20만에 가까운 人畜을 획득하였으며,⁶⁸⁾ 9월 초 冷口關을 넘어 9월 28일 성경으로 귀환하였다.⁶⁹⁾

중원 침공이 한창이던 8월 12일에는 和碩睿親王 도르곤을 右翼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中後所로 들어가게 하고, 和碩豫親王 도도를 左翼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錦州로 들어가게 하였다.⁷⁰⁾ 이는 산해관 외곽에 주둔해 있는 명군이 내지로 이동하여 중원 침공 부대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선 분산 작전이었다. 도르곤과 도도 등은 아직 거가 이끈 중원 침공 부대가 귀환한 직후인 10월 2일에 성경으로 돌아왔다.⁷¹⁾

2년 후 승덕 3년(1638) 9월 청군은 다섯 번째로 내몽골 초원을 거쳐 중원에 침입하였다. 영원 방면으로 진군하여 명군의 시선을 돌린 홍타이지는 도르곤과 요토로 하여금 화북으로 우회하여 장성을 넘게 하였다. 도르곤은 淸山關, 요토는 牆子嶺을 넘어 중원으로 진입한 뒤 북경 주변 지역은 물론 산동 濟南까지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녔다.⁷²⁾ 이때 홍타이지 자신은 영원과 금주 일대에서 명의 주력군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였다. 제5차 중원 침공에서는 비록 요토가 전사하는 손실을 보았으나 총 70여 개 성을 함락시키고 德王 朱由樞를 사로잡아 성경으로 압송하였으며, 포로 46만 명에 은 100만 량 이상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⁷³⁾ 도르곤의 청군은 이듬해 승덕 4년(1639) 3월 산둥에서 천

68) 『清太宗實錄』卷30, 崇德 원년 7월 辛酉(19). 이 시기 만주의 전리품 기록을 보면 “人畜 몇만”이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사람과 가축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즉 포로와 가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잣대로 파악했다는 말이다.

69) 『滿文老檔』(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63) (7), 崇德 원년 9월, pp.1246-1276; 崇德 원년 9월 28일, pp.1292-1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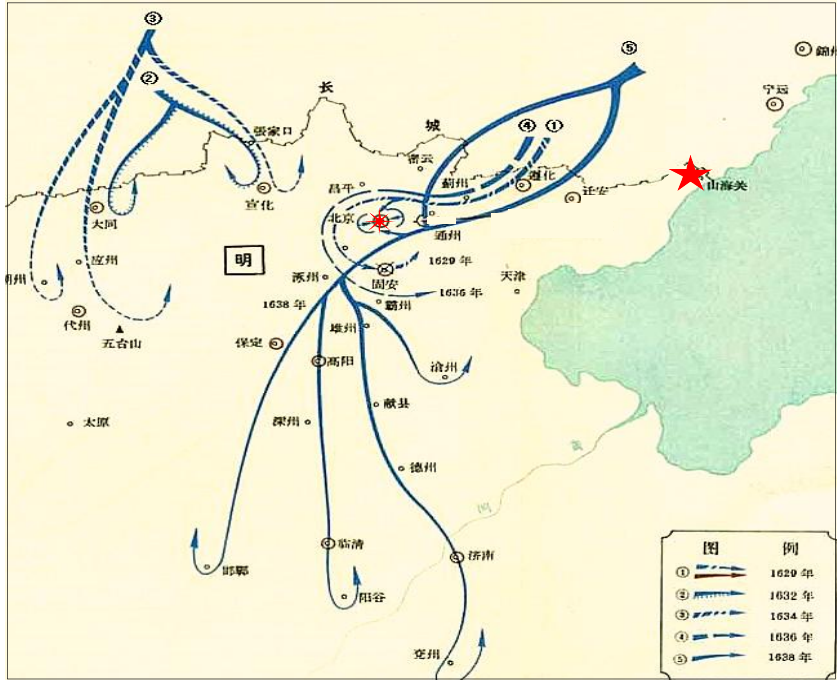
70) 『清太宗實錄』卷30, 崇德 원년 8월 癸未(12).

71) 『清太宗實錄』卷31, 崇德 원년 10월 癸酉(2).

72) 정하영 등 역주, 『瀋陽狀啓 -심양에서 온 편지』, 서울: 창비, 2008, pp.290-291.

진을 거쳐 靑山關을 넘어 성경으로 귀환하였다.⁷⁴⁾

지금까지 살펴본 총 다섯 차례에 걸친 만주의 중원 침공 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홍타이지 시기 중원 침공의 경로

<그림 2>에 보이는 만주의 중원 침공은 예외 없이 모두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여 만리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일단 중원에 진입한 부대는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약탈이 끝나면 다시 장성을 넘어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이는 만주 대신들의

73) 이번 제5차 중원 침공 때 거두어들인 전리품은 이전까지 시도한 총 네 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의 전리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다고 한다. 王先謙, 『東華錄』, 崇德 4년 3월 丙寅(9).

74) 『清太宗實錄』 卷45, 崇德 4년 3월 乙亥(18).

‘대토론’ 의견을 도식화한 <표 1> 중에서 ㉠ 산해관 우회 - ㉡ 전리품 획득 중심의 단기적 전략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총 다섯 차례의 중원 침공 모두 성경을 출발한 지 보통 6개월 이내로 귀환하는 단기전이였다.

그렇다면 홍타이지는 왜 이토록 수차례에 걸쳐 중원 침공을 시도했을까? 그것도 산해관을 직접 돌파하지 못하고 내몽골 초원으로 멀리 우회하여 화북으로 진입하는 공격을 계속 되풀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천총 연간과 승덕 연간 중원 침공의 성과를 당시 사료에서 어떻게 적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전리품의 기록에 빠지지 않는 항목은 금, 은, 비단 등의 재화도 있지만, 가장 중시된 것은 다름 아닌 人口, 즉 한인 포로였다.

이전 누르하치의 한인 탄압 정책으로 요동 지역에는 노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고, 홍타이지는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인구와 토지를 재편하기 위해 “計丁授田”, “編丁立莊” 등과 같은 새로운 토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작의 경험이 풍부한 한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⁷⁵⁾ 즉 홍타이지는 만주의 새로운 근거지가 된 요동 지역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문적인 농업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고, 수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은 바로 한인 포로와 가축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급 방식이었던 것이다.⁷⁶⁾

이를 위해 만주의 군대는 화북 각지의 주현을 점령하더라도 수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구와 재물을 약탈한 뒤 곧바로 퇴각하는 게릴라식 전술을 활용하였다. 홍타이지 시기 중원 침공은 정복이나 영토 지배보다는 약탈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그 파괴상은 더욱 심각하였고, 그 결과

75) 周藤吉之는 일찍이 관행 보고서와 滿鐵이 펴낸 다양한 조사 보고를 활용하여 奉天, 吉林, 黑龍江 지역의 입관 이전 토지 제도와 경제 형태의 특수성을 고찰한 바 있다. 周藤吉之,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特に旗地政策を中心として』, 東京: 河出書房, 1944.

76) 정병철, 『天崩地裂의 時代, 明末清初の 華北社會』,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p.69.

해당 지역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켜 국지적인 반란을 촉발하기도 하였다.⁷⁷⁾ 만주의 군대가 계속해서 화북 지역을 짓밟음으로써 지역 사회의 황폐화와 백성의 유망을 초래하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북경 인근 지역과 산둥 곳곳에서 土賊의 반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 것이다.⁷⁸⁾

그러나 산해관을 얻지 못하는 한 만주의 군대는 계속해서 먼 길을 우회하여 만리장성의 다른 관문을 돌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로가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하였다. 결국, 홍타이지는 수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명을 상대로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었다.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중원 침공 중에 북경성을 포위하기도 하고 북경 인근 지역과 산서·산둥의 여러 주현을 약탈하며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성도 거점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는 행군이 명의 허를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했지만,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성공을 뒤로 한 채 홍타이지의 눈은 비로소 산해관을 향하기 시작했다. 천총 5년(1631) 대릉하성이 만주의 세력권에 들어옴에 따라 錦州가 청 쪽으로 돌출해 있는 명의 최전선이 되었다. 금주는 명 요서 지역의 군사 重鎮으로, 남쪽으로 18리에는 松山城이 있고 서남 40리에는 杏山城이 있었으며, 杏山에서 다시 서남으로 20리에는 塔山城이 있어 후방기지로 기능하고 있었다. 또 다른 요서회량의 중진인 寧遠은 금주에서 서남쪽으로 12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⁷⁹⁾ 명에게 영원과 금주는 산해관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요동

77) 『明清史料』 乙編, 第六本, 「兵部行兵科抄出山東巡按余日新題稿」(崇禎 16년 4월 10일), pp.539a-b; 『明清史料』 壬編, 第五本, 「兵部題行兵科抄出分守倒馬關副總兵劉有實題稿」, pp.473a-b.

78) 정병철, 2008, pp.73-76.

79) 周遠廉·趙世瑜, 『清攝政王多爾袞全傳』,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8, pp.88-89.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다. 반면 청의 입장에서는 영원과 금주를 얻지 못하면 산해관은 공략하기 어려웠고, 산해관을 얻지 못하면 청군은 이전처럼 계속 내몽골 초원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홍타이지는 먼저 산해관 외곽의 4개 城, 즉 금주, 송산, 행산, 탑산을 공략하여 산해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⁸⁰⁾

이로부터 시작된 전투가 바로 유명한 松山·錦州 전투이다. 소위 ‘松錦 전투’는 승덕 5년(1640) 3월부터 승덕 7년(1642) 4월에 걸쳐 2년여간 지속된 전투로서, 만주가 유례없이 긴 시간을 투자한 회심의 승부였다. 승덕 5년(1640) 3월 18일 홍타이지는 지르갈랑과 도도를 각각 좌·우익 군의 대장으로 임명하여 금주 근방에 주둔시키고 둔전을 행하여 공격 거점을 구축하게 하였다.⁸¹⁾ 그리고 6월 15일에는 도르곤, 호오거,



두두, 아바타이 등으로 하여금 수하 병력의 절반을 동원하여 먼저 파견된 지르갈랑과 교대하여 성을 쌓고 둔전하게 하여 금주를 더욱 압박하였다.⁸²⁾

명은 금주의 포위를 뚫기 위해 수차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도르곤이 이를 요격하면서 포위망을 지켜냈다.⁸³⁾ 그리고 9월에는 지르갈랑이 돌아와 도르곤과 교대하였고,⁸⁴⁾ 12월에는 또다시 도르곤, 호오거,

<그림 3> 松錦 전투의 경과

80) 魏源, 『聖武記』(北京: 中華書局, 1984) 卷1, 開國龍興記三, p.29.

81) 『清太宗實錄』 卷51, 崇德 5년 3월 己亥(18).

82) 『清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6월 乙丑(15).

83) 『清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7월 乙酉(6).

84) 『清太宗實錄』 卷52, 崇德 5년 9월 丙戌(8).

두두, 아바타이가 금주를 포위하러 왔다.⁸⁵⁾ 이렇게 물샐 틈 없이 포위망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소규모 전투를 일으켜 영원과 금주 지역에서 제대로 경작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⁸⁶⁾ 홍타이지는 두 달마다 친히 이 지역을 순찰하였고 군사들로 하여금 금주성 주변을 약탈하게 하였으며, 금주를 포위하는 병사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하였다. 홍타이지는 그동안 금주 공략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단기전이 아닌 장기적인 포위 공격의 방침을 세운 것이다.⁸⁷⁾

이때 금주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다름 아닌 前鋒總兵官 祖大壽로서, 10년 전 대릉하성 전투 때 홍타이지에게 항복했다가 몰래 배반하고 다시 명에 귀순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조대수가 아무리 명장이라 하더라도 인원과 병사를 계속 교대시키면서 금주를 압박하는 청군의 포위를 쉽사리 뚫어낼 수가 없었다. 이에 명 조정은 13만 대군을 금주의 서남쪽 영원성에 집결시키고 薊遼總督 洪承疇로 하여금 금주성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때 홍승주는 군량과 군수품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성을 굳게 지키며 청군을 피로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으나,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병부상서 陳新甲은 지구전에 따른 전비 급증을 이유로 속전속결을 주장하였고 황제 역시 洪承疇에게 단기전을 독려했다.⁸⁸⁾

85) 『清太宗實錄』 卷53, 崇德 5년 12월 庚戌(3).

86) 이 전략은 앞서 천총 9년(1635) 儒學生員 沈佩瑞가 제출한 요서 지역의 둔전 활용 방안을 거의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舊滿州檔: 天聰九年』 (1), 天聰 9년 2월 8일, pp.64-67.

87) 승덕 6년(1641) 3월에 지르갈랑이 도르곤과 교대하기 위해 다시 성경에서 금주로 출발하였는데, 도르곤이 지르갈랑의 부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군사를 빼내 빨리 복귀하는 바람에 홍타이지가 크게 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홍타이지는 도르곤을 親王에서 郡王으로 격하시키고 罰銀 1만 량과 두 개 니루의 戶口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연루된 호오거, 아바타이, 두두 등 수많은 만주 대신과 장수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처럼 당시 홍타이지에게 금주 포위 작전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 『清太宗實錄』 卷55, 崇德 6년 3월 丁酉(22).

88) 『崇禎實錄』, 崇禎 14년 6월 乙巳(1).

드디어 승덕 6년(1641) 8월 양 진영 간에 첫 전투가 벌어졌다. 처음에는 홍승주의 명군이 기선을 잡아 청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패전 소식이 성경에 전해지자 홍타이지는 친히 정예기병을 이끌고 옛새 밤낮으로 달려 8월 19일 송산에 도착하였다.⁸⁹⁾ 홍타이지의 참전으로 사기가 오른 청군은 명군의 후방을 찢러 퇴로를 차단하고 군량미와 건조의 공급 루트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포위된 명군은 크게 동요하였고, 吳三桂 등은 야밤을 틈타 후방 거점 영월성으로 달아나려다 도중에 청군의 매복에 걸려 크게 패하였다.⁹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명군 53,783명을 베고 군마 7,440필, 낙타 66마리와 갑옷 9,346벌을 노획하였다. 杏山에서 남쪽의 塔山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다급한 나머지 바다로 뛰어들다가 목숨을 잃은 명군이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이 쾅개친 갑옷과 군마는 수없이 많았고 해수면에 떠 있는 시신은 기러기나 오리 떼처럼 보였다.”고 하였다.⁹¹⁾

홍승주는 패잔병을 이끌고 송산성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하였고, 홍타이지는 송산성을 포위한 채 다시 시간을 끌었다.⁹²⁾ 해가 바뀌어 승덕 7년(1642) 2월 청군은 마침내 야간에 성안으로 진입해 결국 홍승주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⁹³⁾ 송산성의 함락과 홍승주의 생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주성의 軍心은 크게 흔들렸고, 또다시 ‘人相食’하는 군량 부족 상황에 이르자 조대수 또한 결국 청에 투항하였다.⁹⁴⁾ 기세가

89) 이때 홍타이지는 너무나 다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흐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그릇으로 받아냈고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다고 한다. 『清太宗實錄』 卷57, 崇德 6년 8월 壬戌(19).

90) 『清太宗實錄』 卷57, 崇德 6년 8월 壬戌(19).

91) 谷應泰, 『明朝紀事本末補遺』 卷5, 錦寧戰守.

92) 하지만 당시 청군 또한 포위를 지속하기 위한 보급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譯註 昭顯瀋陽日記 2』(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 서울: 민속원, 2008), p.230.

93) 『清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2월 辛酉(21).

94) 『清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3월 己卯(10). 조대수가 투항해 오자 청의 대신들은 10년 전 대동하성 함락 당시 항복했다가 금주성을 설득해 바치겠다고 속여 탈출한 죄를 물어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타이지는 예전과 같이 그를 후

오른 청군은 4월 9일 탑산성을 함락시켰고, 21일에는 행산성의 항복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홍타이지는 명의 관외 주요 거점 가운데 영원성을 제외한 금주와 송산, 행산, 탑산 등 4개 성을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번 송금 전투에서 명군과 청군이 직접 전투를 벌인 것은 불과 며칠에 불과했지만, 그 전후 과정은 무려 2년이 소요되었다. 송금 전투의 결과 명은 산해관 외곽 2백 리 지역의 군사 거점을 상실하여 크게 위축된 반면, 청은 관외 지역을 석권하고 산해관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산해관을 통한 중원 진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

청군이 송덕 7년(1642) 4월 송금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요서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자, 한인 관원들은 좀 더 과감하게 북경을 직접 공격할 것을 상주하였다. 특히 송덕 7년(1642) 9월 5일 구사어진 머르진 히야 툴라이(Tulai, 圖賴)와 祖澤潤, 그리고 머이런장긴 祖可法과 張存仁은 기존의 약탈전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만 유리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장군은 거느리는 從役이 많고 부유한 자는 말이 많고 건장하니 얻는 것이 많지만, 가난한 군사는 그저 자기 한 몸과 말 한 필밖에 없으니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전리품의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⁹⁵⁾ 결국, 북경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모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까지 만주 대신들이 강조해 온 對 중국 전략의 경제적 효과를 다른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천총 9년(1635) 차하르 몽골 복속과 송덕 원년(1636) 조선 침공 이후 만주 내부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반대로 명의 내부 사정은 잇따른 자연재해와 유적의 황행

대하였다.

95) ‘從役’이란 만주어로 쿠톨러(kutule, 庫圖勒)를 가리키는데, 跟馬人 혹은 控馬奴라고 의역하여 주로 말을 관리하는 인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쿠톨러는 참전하여 말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잡일을 담당하였고, 무엇보다 쿠톨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노획물을 약탈하고 운반할 수 있었다. 이상 이훈, 「조선의 거덜과 만주족의 쿠톨러」, 웹진 民研, 2012년 9월호 통권 17호를 참조.

등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관원들은 새로운 對 중국 전략의 전환을 건의하였다.⁹⁶⁾

그러나 홍타이지는 또다시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너희들이 건의한 대로 북경을 곧바로 취하라는 것은 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경을 취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벌목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먼저 양쪽에서 계속 찍어 들어가면 큰 나무가 스스로 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산해관 바깥의 성을 모두 취하지 못했는데 어찌 곧바로 산해관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명나라의 정예부대가 이미 소진되었으니 우리 군대가 사방에서 약탈을 가하면, 저들의 세력은 나날이 쇠퇴할 것이고 우리의 병력은 나날이 강해질 것이니, 그제야 비로소 북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⁹⁷⁾

위 내용에 따르면, 한인 관원들의 끈질긴 주장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북경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경을 취하는 것을 “큰 나무를 베는” 일에 비유한 것은 당시 홍타이지가 북경 공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 번의 공격으로 단숨에 끝낼 수는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홍타이지는 북경 공략에 앞서 산해관 공략을 선결 과제로 삼았고, 산해관 공략을 위해서는 산해관 외곽의 성들을 정복하여 서로의 연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활용하였다. 즉, 북경이건 산해관이건 기습적으로 곧바로 나아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근방을 우선 점령해 놓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사방에서 포위해 나가는 정공법에 가까운 전략을 고수하였다. 이미 천총 연간부터 만주 대신들은 물론, 투항해 온 명의 감생과 생원을 비롯해 기존의 한인 관원들까지도 홍타이지에게 북경 공략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타이지는 여전히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신중한 관점을 쉽게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96)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9) 上冊, 崇德 7년 9월 5일, p.479.

97)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上冊, 崇德 7년 9월 5일, p.479.

마지막으로 홍타이지 생전 최후의 중원 공략인 제6차 중원 침공을 살펴보도록 하자. 승덕 7년(1642) 10월 홍타이지는 아바타이를 奉命大將軍에 임명하여 중원 침공에 나서게 하였다.⁹⁸⁾ 이번에도 산해관을 우회하여 界嶺口와 黃厓口를 통해 장성을 넘어간 청군은 북경 외곽을 거쳐 산둥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약탈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총 88개 성을 점령하고 금 1만 2천여 량, 은 220만 량, 포로 37만 명, 駝馬·騾驢·牛羊 32만 마리를 획득하였다.⁹⁹⁾ 이듬해 6월 성경으로 귀환할 때까지 청군은 장장 8개월간 북경 인근 지역과 산둥 일대를 무인지경으로 휩쓸고 다녔다.¹⁰⁰⁾

지금까지 살펴본 승덕 연간 청군의 중원 공략은 평균 2년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뒤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약탈전으로서, 신생국가 청의 주요한 경제활동의 일환이었다.¹⁰¹⁾ 그러나 약탈은 결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없었다. 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실을 차치하고 약탈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초토화되면 점점 더 중국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위험 부담도 증가하였다.¹⁰²⁾ 횡수를 거듭할수록 청군의 공략 범위는 장성과 인접한 산서와 북경 인근 지역으로부터 산둥과 하남 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차 중원의 한복판으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청군이 한 번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더 이상 충분한 약탈

98) 『清太宗實錄』卷63, 崇德 7년 10월 辛亥(14).

99) 『清太宗實錄』卷64, 崇德 8년 5월 癸卯(11).

100) 이때 청군은 명군의 저항으로 인한 손실 때문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8개월 동안 신속한 이동으로 군사들이 피로하여 스스로 물러난 것이었다고 한다. 周遠廉·趙世瑜, 2008, p.129.

101) 정병철, 2008, p.69; 谷井陽子, 2006, p.47.

102) 특히 농경 국가를 상대로 한 약탈전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목 국가의 화평 제안 패턴을 바꿀드는 '외부변경 전략'이라 정의하였다(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pp.55-56). 물론 만주는 유목 집단이 아니고, 명과 청의 대결을 농경 국가와 유목 국가의 대결로 보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홍타이지가 약탈전을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명과 화의를 맺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사실은, 만주도 당시 약탈전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원 내부로 진입해 들어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¹⁰³⁾

홍타이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금 전투 이후 청에 확실하게 유리한 전황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명과의 화의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예컨대 승덕 7년(1642) 3월 16일 명의 병부상서 진신갑이 보낸 다급한 講和 요청을 받고 홍타이지는 서신의 무례함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화의가 양국의 군신과 백성이 공존하는 길이고 자신도 오랫동안 바라온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⁰⁴⁾ 또한, 금주성을 함락한 뒤 승덕 7년(1642) 10월 마지막 제6차 중원 침공에 나설 때까지도 홍타이지는 명과 화의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¹⁰⁵⁾ 즉, 홍타이지는 무리해서 산해관을 통해 입관하거나 북경을 점령할 의도가 없었고, 가능하다면 명과 화의를 맺고 청 내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요컨대 홍타이지가 황제에 오른 승덕 연간에 이르면 중원 약탈전이 확대되고 송금 전투 승리를 토대로 요서 진출이 성사되었으나, 홍타이지는 여전히 對 중국 화의를 염두에 두면서 산해관과 북경에 대한 공략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았다. 천총 연간에 이어 승덕 연간까지 홍타이지는 명과 수차례 전쟁을 벌였지만, 산해관 돌파는 한 번도 고려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예전의 중원 침공 방식, 즉 단기적인 약탈전을 계속해야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정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결국,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03) 周遠廉·趙世瑜, 2008, p.129.

104) 다만 양국 간에 진정한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모두 명이 청을 멸시하는 오만함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清太宗實錄』 卷59, 崇德 7년 3월 乙酉(16).

105) 『清太宗實錄』 卷63, 崇德 7년 10월 辛亥(14).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만주의 중국 정복과 군사 활동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고, 무관심으로 가려져 있던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의 성과와 한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이전 요, 금, 원의 역사를 통해 만주 정권의 합법성과 영속성을 강조하였으나, 중원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함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만주는 고질적인 식량난에 시달렸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홍타이지는 명의 변경을 공격하여 물자와 식량 등의 전리품을 획득하려 하였다.¹⁰⁶⁾

홍타이지는 만주 대신과의 토론을 통해 차하르나 조선보다는 명을 상대로 한 신속한 침입과 약탈이 만주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만주 대신들은 산해관 공략 여부와 북경의 공격 방법 등에서 각자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최대한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을 향하는 최단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명을 공략하는 안정적인 방법이었지만, 산해관의 확보는 당시 만주에게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만주에게 새로 투항해 온 명의 감생과 생원들은 만주 대신들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북경 공략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한인 관원들은 중원을 약탈의 대상이 아닌 대업을

106) 천총 원년(1627) 조선을 침공한 정묘호란과 승덕 원년(1636)의 병자호란도 당시 연이은 기근으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은 사정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주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병자호란 종전 직후 청은 조선 측에 세폐미 1만 석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開市를 통해 곡물 교역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을 확실한 식량 공급원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은 명과의 시장 단절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으며 배후의 위협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홍타이지는 명과의 전면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2012, pp.337-338; Frederic Wakeman Jr., 1985, p.163.

완성하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對 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차분하게 사태를 관망하면서 한인들의 이상적인 낙관론을 비판하고 기존의 약탈전을 고수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 결과 천총 연간에 시도된 중원 침공은 장기적인 중국 정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對 중국 전략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탈전에 무게가 실렸다.¹⁰⁷⁾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는 계속해서 중원 침공에 나섰고, 승덕 연간 ‘후금군’에서 ‘청군’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주의 군대는 약탈의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청군의 중원 침공은 모두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여 장성의 다른 관문을 넘어 이루어졌다. 일단 중원에 진입한 청군은 신속한 약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약탈이 끝나면 곧바로 성경으로 귀환하였다. 천총 연간과 승덕 연간에 시도된 총 여섯 차례의 중원 침공은 모두 성경을 출발한 지 6개월 이내로 귀환하는 단기전이였다.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군은 먼 길을 우회해야 했고, 너무 길어진 행군 경로로 인해 불의의 습격을 받거나 퇴로가 차단당할 가능성도 상존했기 때문이다. 청군은 화북 각지의 주현을 점령하더라도 수성을 고집하지 않고 인구와 재물을 약탈한 뒤 곧바로 퇴각하는 게릴라식 전술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홍타이지는 수차례 중원 침공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코 명을 상대로 결정타를 날릴 수가 없었다. 그간의 중원 침공 중에 북경성을 포위하기도 하

107) 본고는 만주의 중원 침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만주 내부의 경제적 곤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약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당시 명이나 조선과의 관계에서 불거졌던 대외 명분, 권력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여 좀 더 총체적으로 입관 전 만주의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고 북경 인근 지역과 산서·산동의 여러 주현을 약탈하며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성도 거점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산해관을 피해 화북으로 우회하는 행군이 명의 허를 찌르는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했지만, 산해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정복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청군은 유례없이 긴 시간을 투자하여 송덕 7년(1642) 송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요서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하였지만, 홍타이지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여전히 북경 공략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였고 명과의 화의 노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산해관을 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인물과 변수의 등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만주의 역사적 과업은 1644년 홍타이지의 계승자인 순치제와 도르곤에 의해 완수되었다.¹⁰⁸⁾

(원고투고일 : 2018. 3. 28, 심사수정일 : 2018. 5. 10,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 만주, 산해관(山海關), 청군(淸軍), 홍타이지, 약탈전, 북경(北京)

108) 홍타이지 사후 도르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청군의 입관과 구체적인 북경 입성 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1644년 山海關 전투와 淸軍의 北京 입성」, 『中國史研究』 110, 2017을 참조.

<참 고 문 헌>

- 『舊滿洲檔』(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9)
- 『舊滿州檔: 天聰九年(1·2)』(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72-1975)
- 『內國史院檔: 天聰七年』(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2003)
- 『東華錄』(蔣良騏 撰, 『續修四庫全書』 368, 史部, 編年類)
- 『滿文老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譯註, 北京: 中華書局, 1990)
- 『滿文老檔(1-7)』(滿文老檔研究會 譯註, 東京: 東洋文庫, 1955-1963)
- 『明清史料(甲一辛編)』(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編, 臺北: 商務印書館, 1930-1936)
- 『譯註 昭顯瀋陽日記 2』(奎章閣所藏東宮日記譯註叢書 10, 서울: 민속원, 2008)
-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河內良弘 譯註·編著, 京都: 松香堂書店, 2010)
- 『天聰朝臣工奏議』(潘喆 等編, 『清入關前史料選輯』(第2輯),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9)
- 『清實錄』(北京: 中華書局, 1985)
-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上冊)』(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9)
- 정병철, 『“天崩地裂”의 時代, 明末清初の 華北社會』,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李鴻彬, 『滿族崛起與清帝國建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3.
- 鄭天挺, 『清史探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 周遠廉·趙世瑜, 『清攝政王多爾袞全傳』,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2008.
-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 Frederic Wakeman Jr., *The Great Enterprise: The Manchu Reconstruction*

- of Imperial Order in Seventeenth-Century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Cambridge, Mass.: Blackwell, 1997.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2012. <http://uci.or.kr/G704-001396.2012..85.013>
- 蘇燦永, 「入關前 清朝의 經濟的 狀況 - 崇德 年間的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4, 2010.
- 劉承軍, 「清代開國政權意識形態探析 - 以清太祖、太宗正統觀爲中心的考察」, 『商丘師範學院學報』, 2012-11.
- 沈一民, 「入關前清(後金)南略次數考 - 兼論《清實錄》之失載」, 『滿語研究』 2007-1.
- 閻崇年, 「論明代保衛北京的民族英雄袁崇煥」, 『北京史論文集』 第1輯, 北京: 北京史研究會, 1980.
- 吳剛, 「“搶西邊”和“欲得中原” - “己巳之役”中滿洲貴族新舊“戰爭理念”的碰撞和沖突」, 『清史研究』, 2011-4.
- 王思治·李鴻彬, 「論皇太極時期對明作戰策略的演變」,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明清檔案與歷史研究: 中國第一歷史檔案館六十周年紀念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88.
- 袁良義, 「清兵入關的歷史功績 - 爲紀念清兵入關350周年而作」, 『史學集刊』, 1994-4.
- Mark C. Elliott, “Whose Empire Shall It Be?: Manchu Figurations of Historical Proce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ynn Struve ed., *Time, Temporality, and Imperial Transi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Abstract>

Eyes on the 'Central Plains': The Manchus'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Park, Min-su

Since the founding of the empire, Nurhaci and his followers suffered from continuous shortage of food, and repeatedly attacked the Ming frontier to secure supplies and other essential materials. Later, in his discussion with the high-ranking Manchu officials, we can see that Hong Taiji considered these frontier raids as the most effective way of raising the morale of the Manchus. In theory, Hong Taiji knew that attacking Beijing via the Shanhai Pass was the most effective way of conquering the Ming, but he also realized that this strategy was unrealistic and risky. Collaborators from the Ming also proposed detailed and systematic plans to achieve this seemingly impossible plan of overtaking Beijing. However, Hong Taiji clearly rejected this optimistic idea of the Ming defectors and Manchu officials, and maintained a more cautious approach of staying to the raiding expeditions against the Ming. The scale and frequency of the raids increased over time, but Hong Taiji still avoided any contact with Shanhai Pass itself and focused the attacks to the frontier area around Beijing. Despite his continuous success in the raids to the Ming territory, as long as he did not secure Shanhai Pass the raids were only raids; they did not evolve into conquest war in a real meaning.

Key Words : Manchu, Shanhai Pass, Qing army, Hong Taiji, Predatory war, Beijing

